

제37호

발행일 : 서기 2018년 2월 6일(화)
창간일 : 서기 2000년 8월 25일
구독신청 : (02) 8336-5631
FAX : (02) 8333-9401
H.P : 010-4711-8127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報

발행인 : 김재영
편집인 : 김영수
발행처 :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길 8(대림동)
인쇄인 : 김성희
사무실 전화번호 : (02) 836-5631
사무국장 휴대전화 : 010-4711-8127

신년사



회장 김재영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丁酉年을 보내고 대망의 戊戌年을 맞이하여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 불황속에서도 종친여러분들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정진하시어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희망찬 내일을 위해 그 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종회 발전을 위해 설계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지난 4년 동안에 걸쳐 복잡했던 족보관계도 깨끗하게 마무리하여 각 가정에 배송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 족보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족보의 기능을 활용하여 각 집안의 가보, 유물, 묘소사진, 영정사진 등을 입력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으니 인터넷 족보의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익원공 문집 발간 추진은 우리 종인님들과 안동김씨역사연구회 및 그 분야에 학식이 있고 문집 발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중이며 인터넷 다음 카페에 "익원공김사형자료집"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5차에 걸쳐 모임을 갖고 자료 수집 및 편집방법에 대한 토의와 추진상황 의견교환 등으로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익원공선조님의 훌륭한신 위업을 재조명하여 후손들에 홍보하고 대대로 물

려주는데 손색이 없는 문집이 되도록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인사연 탐방에 앞서 함양의 낙포 영각을 사전에 방문하여 자료를 준비한 후 인사연 함양지역 탐방시에 많은 종인들과 함께 낙포영각에 고유제를 올렸으며 그 후에 이제까지 몰랐던 명성각과 낙포영각 상량문 이전기 명성당기 상량문 등 많은 현판을 촬영하여 자료집에 수록하고자 삼차에 걸쳐 다녀 왔습니다.
4. 위선사업과 종재 관리에 있어서도 선조님께서 물려준 종재 유물 묘소 등의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오래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 봄에 밀직사사공 설단주변과 신도비각 정비를 하였고 낙포재 뒤 배수로도 정비하였으며 대림동 회관 수도관 교체 등 종재 보존관리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종회의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예산 절감으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종회의 발전을 위해 종인 간 화합과 종회의 단합을 위해 각 소파와 지역 행사 그리고 대중회 행사에도 참여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이제 우리 종회는 명문 종회로서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종회를 선도해 나가는데 우리 종친들께서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戊戌年 새해에 새로운 꿈들을 모두 달성하셔서 일신과 가정과 문중의 발전을 이루시고 건강하셔서 금년 내내 가정이 행복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2018년 1월 일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회장 김재영



謹賀新年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임원들은 새해에도 종친 여러분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것을 약속드리오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당부드립니다.

종친 여러분 새해엔 뜻하시는 일 모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셔서 행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장단

고 문 : 洙栢(부), 恒植(부), 善會(부) 在寬(전), 在勳(전), 明勳(전), 榮俊(문), 在璠(문), 太圭(문), 泰吉(호), 容大(호), 榮宗(목) 文元(목), 容世(목), 仲元(목), , 在植(전)

명예회장 : 錫漢(전)

회 장 : 在永(문)

부 회 장 : 三郎(부), 在澤(전), 在元(전), 根植(문), 在鎭(문), 昌植(문), 容默(호) 在男(호), 允默(호), 聖會(호), 智默(호), 鍾會(목), 泰麟(목), 玄默(몽)

감 사 : 洙寅(부), 晟會(문)

이 사 : 容植(참), 容九(참), 煥錫(부), 銀業(부), 京會(부), 正會(부) 信會(부), 洙銀(부), 昌會(부), 光洙(부), 容官(부), 奉會(부)

在善(전), 泰振(전), 正會(전), 在萬(전), 在道(전), 在奎(전) 銀會(전), 潤默(문), 鎭默(문), 在潤(문), 永會(문), 泰龍(문) 善會(문), 德會(문), 東植(문), 珍會(문), 鳳會(문), 洙山(문) 根植(문), 泰喆(문), 成會(문), 東洙(문), 水運(문), 在封(호) 在南(호), 在和(호), 在洪(호), 在源(호), 澈教(호), 達洙(호) 春植(호), 吳鎭(호), 泰連(호), 英桓(호), 永詳(호), 容瑞(호) 榮和(목), 鍾默(목), 在翰(목), 容默(목), 在俊(목), 福述(목) 哲會(목), 桂默(목), 在陽(목), 泰植(목), 洙鐘(목), 洙大(목) 張會(목), 泰正(목), 正默(목), 俊燁(몽), 榮天(몽)

※ 참 - 참의공, 부 - 부령공 전 - 전참공 문 - 문정공 호 - 호소공 목 - 목사공 몽 - 몽양공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 일정공고(예정)

1. 2018년도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 제49차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익원공파총회 회의 종료 후 동추공총회, 문정공총회, 목사공총회 회의가 속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안건 : 2017년도 수입지출결산보고 및 2018년도예산(안) 심의의결 기타
3. 장소 :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2. 한강호텔 02-444-6611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 5분거리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횡단보도 옆 호텔서틀베스이용(10분간격)

회의명	일정	장소	참석범위
익원공총회 회장단회	2018년2월20일11시	익원공파총회 사무실	익원공파총회 회장단
대총회 회장단회	2018년2월27일11시	대총회 사무실	안동김씨대총회회장단
익원공파총회 이사회	2018년3월07일11시	광진구 광장동 한강호텔	익원공파총회 이사
대총회 이사회	2018년3월08일11시	효창공원 백범 기념관	안동김씨대총회 이사
익원공파총회 정기총회	2018년3월21일11시	광진구 광장동 한강호텔	익원공파총회 전회원
대총회 정기총회	2018년3월22일11시	효창공원 백범 기념관	안동김씨 전회원
문영공총회 정기총회	2018년3월23일11시	안양시 타워컨벤션13층	문영공총회 전회원

제610주기 익원공 諱, 사형 향사 및 제581주기 밀직사사공 諱, 陞 향사 봉행



2017년 11월 23일(음 10월 6일) 11시 토요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산 49번지 묘하에서 전국에서 180여 참여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올리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사가 봉행이 되었다. 향사전

분정회의에서 익원공향사에는 초헌관 재영(익원공파총회장) 아헌관 영환(안사연 회장) 종헌관 조충호(평양조씨 종친회 이사) 집례 재만(전침공) 진설 은목(문정공) 대축 성희(부회장 효소공) 찬인 정목(목사공 대구) 봉향 태선(서울) 봉로 태선 사준 태일(문정공) 봉작 태신(목사공) 전작 태철(문정공 수원) 직일 재진(고문 당진)님등이 추천되어 향사가 봉행되었으며 이어서 밀직사사공 향사에도 익원공 분정례에 준하여 추천된 제관은 초헌관 석한(대총회장) 아헌관 재화(효소공) 종헌관 재택(전침공)등의 헌작으로 향사를 질서정연하게 종료하고 낙포제가 마련된 음식을 나누며 신임회장 김재영 회장께서 앞으로 조상님을

받드는 일과 종친간에 친목을 다져 화합하는 일에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趙浚(조선 개국1등 공신) 평양조씨 종친회에서 참제한 조충호씨가 종헌관으로 헌작하여 익원공 휘 김사형 파시조님과 조준 정승과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두 문중간 유대를 돈독히 하라고 하였다.

이날 610주기 향사를 봉행한 익원공 휘 김사형은 호는 낙포이고 安東人이며 중시조이신 상락군 개국공 충렬공의 현손이시며 중대광상락군 김순(문영공)의 증손이시고 상락후 김영후(정간공)의 손자이시며, 보국승록대부 영삼사사 상락군 金嚴(김천)의 자이다.

고려 충혜왕 2년 辛巳年(1341년) 출생하여 고려의 벼슬은 단성보리공신 삼사좌사 동판도평의사사를 역임하였으며 조선왕조에서는 순충분의 좌명동덕 개국공신 추충협찬정랑정사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좌정승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상락부원군 삼헌관 시호는 익원공이다. 태종 7년 정해년(1407년) 7월 30일 향년 67세로 서거하셨으며 아들은 둘이며 큰 아들은 陞(육)은 동지중추부사 둘째 陞(승)은 밀직사사공이다. 조준과 더불어 8년동안 정승에 있었으며 재임 하시는 동안 강직하고 명확한 성품으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제610주기 익원공 휘 김사형 제581주기 밀직사사공 휘 김승 향사시 향족대 성금 내역 단위: 원

번호	성명	금액	비고
1	김재영	1,000,000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 회장
2	김석한	500,000	안동김씨 대총회장
3	수원 참의공	300,000	문정공 수원 참의공 종중
4	문영공 총회	200,000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329-1
5	김강식	200,000	문정공 하남시 신장2동 527-4
6	김재남	200,000	효소공 익원공파총회 부회장
7	김용목	200,000	효소공 회장 익원공파총회 부회장
8	김영수	200,000	익원공파총회 사무국장
9	김영환	100,000	문온공파 회장 안사연 회장
10	김성희	100,000	효소공 익원공파총회 부회장
11	김태철	100,000	문정공 문영공 총회 총무
12	김영화	100,000	목사공 대구 수성구 수성로56길55
13	김종원	100,000	목사공 익원공파총회 고문
14	김근식	100,000	문정공 회장 익원공파총회 부회장
15	이목 종친회	100,000	안산 이목 종친회
16	익원공파대구	100,000	익원공파 대구종친회
17	문정공 종친회	100,000	문정공파 종친회
18	김재만	100,000	대경공 회장 동두천 평양동
19	안동김씨대총회	100,000	안동김씨 대총회
20	김춘식	100,000	안렴사공파총회 수도권 총회 회장
21	김재진	100,000	문정공 익원공파총회 고문
22	김철교	100,000	효소공 익원공파총회 이사
23	김용대	100,000	효소공 익원공파총회 고문
24	김근식	100,000	대전 익원공파총회 이사
25	김천웅	100,000	제학공 총회

번호	성명	금액	비고
26	지추공(환)종중	100,000	춘천 지추공 종친회
27	김재식	100,000	전침공 익원공파총회 고문
28	김지목	100,000	동추공 총회 회장 효소공
29	김태영	100,000	대총회 사무부총장 군사공
30	김종희	100,000	고창 참의공
31	좌랑공 종친회	100,000	고창 부령공
32	김삼량	100,000	부령공파총회 회장 고창
33	좌랑녹등 종중	100,000	고창 좌랑공 녹등종친회
34	김진희	100,000	문정공 익원공파 이사
35	김영채	100,000	목사공 익원공파총회 고문
36	김태길	100,000	청주지역 종친회장 효소공
37	김현목	100,000	평양공총회 회장 익원공부회장
38	강릉 주부공총회	100,000	목사공 주부공 총회
39	전침공 총회	100,000	전침공 총회
40	충민공 총회	100,000	전침공 총회 충민공종중
41	김정목	50,000	익원공파 대구종친회장
42	김선희	50,000	문정공 당진
43	김태신	50,000	목사공
44	김영희	50,000	문정공 수원 참의공
45	김수업	50,000	좌랑공 익원공파 이사
46	김수인	50,000	익원공파총회 감사
47	김재택	50,000	전침공 회장
48	안렴사공파 총회	100,000	안렴사공파총회
계		6,350,000	

전침공 휘 종윤 향사 봉행



2017년10월15일) 일요일 11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산106번지 전침공 묘하에서 김석한(대종회회장) 김영만(문영공종친회 회장) 김선희(안렴사공파총회 회장) 등 종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올리고 향사전 분정회의에서 초헌관에 재관(전침공) 아현관 영만(문영공종중 회장) 종헌관에 근식(문정공종중 회장) 진설 재식(전침공종중 회장) 집례 재만(대경공회장) 대축 태진(총무) 찬인 영수(대경공) 봉향 원희 봉로 은희(부정공) 봉작 상만 사준 기회 직일 석한(대종회회장)이 추천이되어 집례자의 창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향사가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 행사를 마치고 음복후 현지에서 전침공 정기총회를 개최 금년도

수입, 지출 결산보고 및 임원개선에 서 6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한 재식 회장에 뒤를이어 재택 신임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총무에는 김충식이 선임이되었다. 신임 재택회장은 수락 인사말로 전임회장이 6년동안 종회발전에 기여한 많은 공적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전임회장님과 종친 여러분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선조님 모시는 재실이 없는 것이 선조님들께 죄를 지은 것 같으며 제가 솔선해서 재실건립에 앞장서 모금운동에 나서겠으니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후원을 당부드린다면 인사말을 맺었다.



한 제물을 올리고 향사전 분정회의에서 초헌관에 재관(전침공) 아현관 영만(문영공종중 회장) 종헌관에 근식(문정공종중 회장) 진설 재식(전침공종중 회장) 집례 재만(대경공회장) 대축 태진(총무) 찬인 영수(대경공) 봉향 원희 봉로 은희(부정공) 봉작 상만 사준 기회 직일 석한(대종회회장)이 추천이되어 집례자의 창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향사가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 행사를 마치고 음복후 현지에서 전침공 정기총회를 개최 금년도

문정공 휘 질 향사 봉행



2017년11월27일14시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산 92번지 문정공 (휘 질) 묘하에서 초헌관 재영(익원공파종회회장) 아현관 보식 종헌관 재만(전침공)대축에 선희(당진) 봉로 원희 봉작 태일 사준 태준 전작 태선 태철의 집례하에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향사가 봉행이되었다 예년대로 향사를 마치고 하산하여 금년도 새로 개보수하여 카펫트를 깔아 깨끗하고 아담하게 단장한 재실에서 문정공 후대 길안군 휘 의동(익원공4대손) 부사공 휘 지동(익원공4대손) 판관공 휘 변(익원공5대손) 별좌공 휘 택(익원공5대손) 군수 휘 근(익원공13대손) 휘 재혁(익원공14대손) 분들의 향사를 편안하게 모시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실이 없어 협소하고 어수선한 헛간에서 선조님들의 향사를 매년 모시었다. 이것이 후손으로서 선조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죄의식을 느끼고 신축은 허가 관계상(공원부지)불가능하여 증개축을 해서라도 재실을 만들어 보자 결심을 하고 총회 의결을 받아 어렵게 공사자금을 마련하고 민원이 생기면 공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사전 마을 이장과 협의하고 이웃 주민들을 설득하며 어려운 일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신축이 아닌 증개축은 하다보면 추가 공사가 생기게 마련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완공하기가 어려워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직영하기로 하고

공사 기간동안(5월-6월말)교통편도 좋지 않은 공사현장을 매일 방문 직접 공사 인부를 주선하고 감독하며 같이 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비 830만원으로 오늘의 이 아담하고 깨끗한 재실을 만들어 현판식을 가지면서 문정공 회장이 감회의 눈시를 짓시는 것을 볼 때 회장이 얼마나 고생하였는가를 짐작을 할 수 있었다. 또 본 垸地內에 폐가가 되다시피한 구건물을 같이 개보수하여 매월 150만원의 임대료가 연간 1,800만원이나 들어와 이제는 문정공종회에도 자금도 생기기여 위선사업을 넓혀 나갈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된 것 등이 고생한 보람이라고 회장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요즈음은 잃어버린 종토 찾는 일로 정부 기록물 보관소 토지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를 연람 음현리779번지 44평 내리 산115번지 390평음현리738-2번지 19평 무주부동산 정리시 국가로 소유권등기가 된것을 찾아내 증빙서를 확보하여 선조님들이 물려준 땅인데 대소를 불문하고 못 찾는다는 것은 후손의 도리가 아니다며 소유권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일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근식 회장님의 승조이념에 경의를 표시하며 筆者는 평소 김근식회장이 선조님을 위한 위선사업을 위해서는 종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론에 공감이가서 이 事例을 소개 하였습이다. - 익원공 21대손 사무국장 김영수 제공 -



태준 전작 태선 태철의 집례하에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향사가 봉행이되었다 예년대로 향사를 마치고 하산하여 금년도 새로 개보수하여 카펫트를 깔아 깨끗하고 아담하게 단장한 재실에서 문정공 후대 길안군 휘 의동(익원공4대손) 부사공 휘 지동(익원공4대손) 판관공 휘 변(익원공5대손) 별좌공 휘 택(익원공5대손) 군수 휘 근(익원공13대손) 휘 재혁(익원공14대손) 분들의 향사를 편안하게 모시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실이 없어 협소하고 어수선한 헛간에서 선조님들의 향사를 매년 모시었다. 이것이 후손으로서 선조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죄의식을 느끼고 신축은 허가 관계상(공원부지)불가능하여 증개축을 해서라도 재실을 만들어 보자 결심을 하고 총회 의결을 받아 어렵게 공사자금을 마련하고 민원이 생기면 공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사전 마을 이장과 협의하고 이웃 주민들을 설득하며 어려운 일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신축이 아닌 증개축은 하다보면 추가 공사가 생기게 마련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완공하기가 어려워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직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족보 활용 안내

종친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제 올미 대동보가 발간이 되어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병행하여 인터넷 족보의 구축도 완성이 되어 인터넷 족보의 활용이 활성화 되고있습니다. 이제 부터 인터넷 족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문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랑할 만한 가보, 유물, 윗 선조님 사진 본인사진 묘소사진 등을 인터넷에 입력시켜 후손 대대로 물려 줄수 있도록 인터넷 족보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규정을 지난 회장단 회의에서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종친들의 많은 활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입력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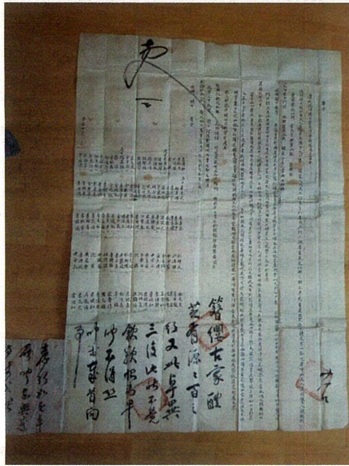
- 가. 사진류 등재 : 가보, 유물, 조상님들의 묘소사진, 조상님 영정사진, 본인사진, 가족 사진, 등 기타 입력
- 나. 족보내용 수정 : 누보자 등재, 출생자 등재, 사망자 제적, 먼주첨삭, 오타자 수정 등

- 2. 입력방법 : 파종회 비치된 신청서 작성 사진 첨부(사진 1인당 10매) 파종회에 접수 대중회 경우 뿌리정보에서 입력

- 3. 수수료 규정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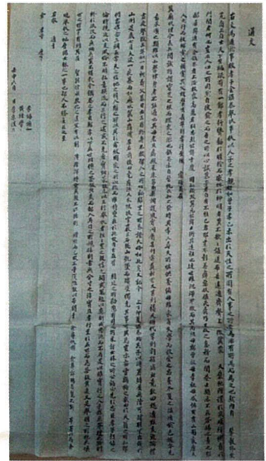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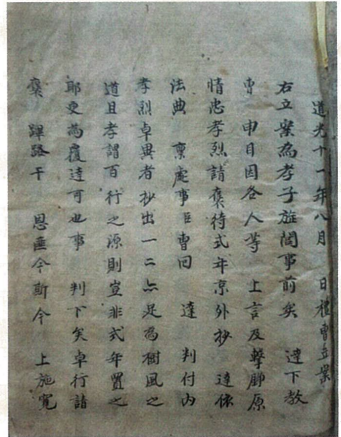
적	요	건당	수수료	비 고
교정비(오,탈자)		1건당	금회에한정 무료처우 10,000	올미대보에 오,탈자,未교정부분
신규 수면(출생,혼인,사망)		1인당	10,000	
누보자(계대,개별)		1인당	15,000	올미대보에 없고 신규 입적시 근친확인서 첨부
묘소 사진		1기당	10,000	묘위치 지번과 묘소표시
사진 (개인,가족 등)		1매당	10,000	
사진 (상석,비석 등)		1매당	10,000	
사진 (교지,문서 등)		1매당	10,000	
수권내용 변경 등		1장당	20,000	올미대보 수권 위원회 경우

5代 孝子 孝婦 家門의 孝行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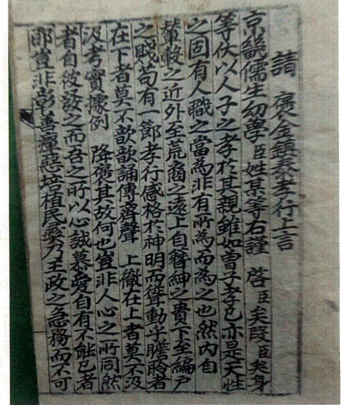


인간이 禽獸(금수)와 다른 것은 부모와 자식간에 孝가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孝誠으로 섬기는 것은 人間의 根本道理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法度의 으뜸이다 그럼에도 요즘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핵 가족화 되어가며 孝에 대한 개념도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어 우리가 문에 5대에 걸친 효행록을 소개하고자한다. 五代제 孝子 孝婦로 나라에서 旌門을 세워 표창한 孝子 鎮泰(익원공 16代孫 觀察使公 13代孫) 이분

에 누어 계실때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업고 대소변을 봐드리는등 정성을 다하였다. 병이 더욱 깊어지자 어머니님 대변을 맛을 보며 달고 쓴맛으로 병의 위중함을 판단 대처하며 어머니 대신 내가 죽게 해달라며 기도하였으나 병세가 더욱 우중하여 혼수 상태가 되자 자기 손가락을 잘라 피를 어머니 입 속에 흘려넣으니 지극한 효가 하늘에 닿았는지 노모가 회생 하셨다고 하였다. 결국 어머니가 운명하시자 애통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삼년상 동안 매일 무덤을 찾아 통곡하니 피골이 상접하고 여위어 보는 사람마다 애처롭게 느끼었다. 아버지 묘와 墓榭하고는 매일 조석간으로 묘를 찾아 살피기를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으니 이분의 효를 인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타계한 고종 4년(1867년3월7일) 7월에 대흥수가 나서 뒷산이 사태가 나서 산에서 굴러 내린 바위덩어가 집을 부수고 흙모래가 쌓여 마을 전체가 큰 재앙을 당했는데 오직 김진태 집만이 그대로 남아 재앙을 면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그의 효성이 하늘에 미쳐 그의 집을 보호한 것이라고 포천 고을에 소문이 나서 포천에 선비 이경한 외 황종학 이석채등이 1872년壬寅 6월에, 通文 돌리고 그해 11월에 이경한 외7명의 연명으로 城主에게 효행 표창 단지를 올렸다. 1873년癸酉 4월에는 이경한외 105명의 연명으로 巡察使에게 단지를 다시 올려 이들의 단자와 상언을 토대로 수차에 걸쳐 현지 사실 조사후 모든 것이 확인하므로 고종24년(1887년)丁亥 윤4월3일 효자 정려를 내렸다.



을 보이신 분이다. 이분의 高祖母 慶州鄭氏 일찍이 孝婦로 나라에서 旌門을 하사 받으셨고 曾祖母이신 全義李氏도 효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셨다. 祖母이신 楊根咸氏도 지역에서 다 선망하는 孝婦였다. 아버지이신 長年은 영조13년(1767년-1809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함이 널리 알려져 道光十一年八月 禮曹立案에 보면 장년은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천리 밖에서도 가지와 부모님한테 먼저 공양하고 항상 웃는웃는 일 없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다.



노모가 연세가 80이 되시니 병환으로 몸져 누우시는 날이 많았다. 장년은 잠시도 노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며 간호를 지극 정성으로 해 드렸으며 병환이 없을 때에도 아침에 나갔다가도 점심전에 꼭 들어와 안부를 묻고 점심을 챙겨드리고 자기가 못 올 때는 부인을 시켜 노모 돌보기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많이 배우고 배운바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년의 효행을 본 받고자 하였으나 어찌 그의 효행을 흉낸들 낼 수 있으리요 효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야 하는 것이다.

인근 포천(경기도 포천시)의 모든 선비들이 그를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 순조 30년(1830년) 5월4일 효자정문을 하사하여 그의 효행을 세상에 널리 공포하였다. 또 이분의 아드님 진태는 대대로 효도하는 가문에서 出天之孝子가 나섰다. 순조5년(1805년)에 태어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집이 가난하여 공부는 많이 못했으나 어머니 공양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연로하여 문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방

에 누어 계실때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업고 대소변을 봐드리는등 정성을 다하였다. 병이 더욱 깊어지자 어머니님 대변을 맛을 보며 달고 쓴맛으로 병의 위중함을 판단 대처하며 어머니 대신 내가 죽게 해달라며 기도하였으나 병세가 더욱 우중하여 혼수 상태가 되자 자기 손가락을 잘라 피를 어머니 입 속에 흘려넣으니 지극한 효가 하늘에 닿았는지 노모가 회생 하셨다고 하였다. 결국 어머니가 운명하시자 애통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삼년상 동안 매일 무덤을 찾아 통곡하니 피골이 상접하고 여위어 보는 사람마다 애처롭게 느끼었다. 아버지 묘와 墓榭하고는 매일 조석간으로 묘를 찾아 살피기를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으니 이분의 효를 인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타계한 고종 4년(1867년3월7일) 7월에 대흥수가 나서 뒷산이 사태가 나서 산에서 굴러 내린 바위덩어가 집을 부수고 흙모래가 쌓여 마을 전체가 큰 재앙을 당했는데 오직 김진태 집만이 그대로 남아 재앙을 면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그의 효성이 하늘에 미쳐 그의 집을 보호한 것이라고 포천 고을에 소문이 나서 포천에 선비 이경한 외 황종학 이석채등이 1872년壬寅 6월에, 通文 돌리고 그해 11월에 이경한 외7명의 연명으로 城主에게 효행 표창 단지를 올렸다. 1873년癸酉 4월에는 이경한외 105명의 연명으로 巡察使에게 단지를 다시 올려 이들의 단자와 상언을 토대로 수차에 걸쳐 현지 사실 조사후 모든 것이 확인하므로 고종24년(1887년)丁亥 윤4월3일 효자 정려를 내렸다. 지금도 그분의 4대 후손들이 그분의 뜻과 얼을 받아 효를 몸소 실행하여 후손으로서 한치의 부끄럼없이 代代로 孝 실천하는 가문으로 칭송을 받고 있으며 선조님들이 받은 정려는 오랜 세월과 전란으로 없어졌으나 예조에서 김장년에게 내린 정려문의 입안과 진태의 효자표창 통문 단자와 순찰사의 통지문 上言등을 4대손 김재훈이 고히 보관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흙속에 묻혀 있으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보석을 깨어 갈고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분들의 효행을 널리 알려 사라져 가는 효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효행록을 소개하였습니다.

- 익원공 21대손 사무국장 김영수 제공 -

익원공 휘 사형 문집 발간 자료(원고) 모집

익원공 휘사형 파시조님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위업을 발골 재조명하여 후손들에게 傳受(전수)하여 가문의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문집을 만들고자 편집위원회를 편성운영하며 익원공 문집 카페를 개설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통해 추진 사항 점검, 추진방향 토의, 의견 교환, 추진 독려 등으로 금년도 출간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종친여러분의 후원과 협조바랍니다.

- 가. 문집 자료(원고) 수집 범위
 - 익원공 先代 : 총령공,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문영공, 정간공, 영삼사공
 - 익원공 後代 : 밀직사사공, 호군공(중준) - 참의공, 부령공(중한) - 좌랑공 직장공 사간공 동추공, 전첨공(중윤) - 감찰공 부정공 관찰사공 동추공 - 문정공 효소공 목사공 풍양군공
- 위 선조님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공개되지않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거나 전

- 해오는 유래등
- 나. 자료(원고) 수집방법 : 인터넷 다음카페 "익원공 김사형 자료집"에 원고를 올리거나 원고 사본을 직접 문집 편찬위원회에 접수
- 다. 자료(원고) 접수 기한 : 편집관계상 5월31까지 접수
- 라. 접수처 : 익원공문집 편찬위원회(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8길8 안동김씨회관4층)
- 마. 연락처 : 02) 835-5631 010-4711-8127

- 익원공 문집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재영 -